

한양대학교 2022학년도 논술전형

인문계열 (오후 1)



성명		지원 학부·학과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유의 사항

1. 90분 안에 답안을 작성하시오.
2. 답안지는 검정색 펜(샤프, 볼펜, 연필)으로 작성하시오.
3. 답안지와 문제지, 연습지를 함께 제출하시오.
4. 다음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 1) 답안지를 검정색 펜(샤프, 볼펜, 연필)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 2)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기나 표현을 한 경우
 - 3) 답안을 해당 답란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감독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다음 장으로 넘기지 마시오.

[문제] (가)의 ㉠을 갖춘 유권자라면 (나)의 밑줄 친 ‘빨간 버스의 구호’를 보고 어떤 질문들을 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다)의 국가 A, B가 처한 ㉡의 문제를 각각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안하시오. (1200자, 100점)

(가)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다. 교육의 기회가 부족했던 과거에는 문맹(文盲)이라는 말을 주로 썼다. 이 말은 글자를 익히지 못해 자유자재로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그래서 한글 해독을 강조하는 탈문맹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글자 자체를 다루는 일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요즘에는 문해력(文解力)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문해력이란 글자 기호의 해독을 넘어서 그것이 표현하고 있는 정보와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다. 사람들은 이 말을 ‘글을 풀어내는 힘’ 정도의 뜻으로 보고 주로 학교 공부나 성적 등과 관련지어 사용한다.

그런데 문맹이나 문해력이라는 용어는 모두 ㉠리터러시(literacy)라는 말에서 왔다. 리터러시란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글, 정보, 자료들을 ‘읽고 쓰는 일 또는 그런 능력’이다. 그래서 리터러시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글자를 해독해야 하고 글의 내용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리터러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리터러시는 글자와 정보의 처리를 넘어서 다양한 텍스트를 읽고 사용하여 복잡한 생활 세계의 의사 결정 및 문제 해결 과정에 합리적이면서도 비판적으로 참여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브라질의 지성인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는 리터러시를 정의하면서 ‘정신의 관료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눈앞에 보이는 정보 그 자체만을 기계적으로 다루는 구태의연한 독자가 되지 말라는 조언이자, 누군가가 정해진 방식으로 읽거나 분석과 판단 없이 피상적으로 읽는 것에 익숙해지지 말라는 충고이다. 관료적 읽기에는 날카로운 문제 의식이 스며들 틈이 없고, 비판적으로 질문하는 유연성이 발휘될 여유도 없다.

우리가 다양한 매체로 읽고 쓰면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공부와 일을 한다는 점에서 리터러시는 개인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학습 도구다. 하지만 리터러시의 경험은 단지 개인사로만 남지 않는다. 깨어있는 시민은 함께 읽고 쓰면서 공동체의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변화의 의제를 설정하며, 대안적 미래를 토론하는 일에 부지런하다. 따지고 보면, 인류 문명사의 수많은 변화와 진보가 함께 읽고 생각하는 경험을 통해서 실현되었다. 세상을 읽고 쓰는 방식인 리터러시는 우리가 공동체적 질문과 사유를 통해서 공유된 성찰과 비전을 도모하고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때 반드시 요구되는 사회 변혁의 도구인 것이다.

주어진 짧은 글에서 정보를 취하는 능력만으로는 합리적 시민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양한 형식과 내용, 다양한 목적과 의도를 가진 수많은 문서, 광고, 선전 문구, 인포그래픽, 각종 미디어 텍스트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좀 더 정밀하게 읽고 날카롭게 판단하는 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 변화의 시대는 다양한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행간에 진실을 감춘 검증되지 않은 자료, 정체와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한다. 시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와 여론이 일상적으로 왜곡되고 날로 진화하는 바이러스의 위협과 단번에 지구를 태워 버릴 듯한 기후 재난의 시대에, 우리는 지구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철저하게 읽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리터러시에도 격차가 생긴다는 점이다. 학교와 직장, 온라인과 오프라인, 문화와 정치의 장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의사 결정 앞에서 제대로 읽고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러한 리터러시 격차는 지능과 같은 생득적 요인보다는 후천적으로 경험하는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의 영향과 그로 인한 학습 기회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이는 개인적 성공의 양극화도 가져오지만,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협력적으로 사유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점점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리터러시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리터러시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 속한 의제임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리터러시의 성패는 한 개인의 재능이나 노력에만 달려 있지 않다. 리터러시를 제대로 교육하는 것은 후속 세대가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시민으로서 읽고 판단하고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나라의 교육 당국이라면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책임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

(나)

브렉시트(Brexit)란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사건을 말한다. 2016년에 영국인들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브렉시트를 결정했다. 브렉시트의 동기는 'EU에 가입한 동안 지금까지 영국에게 돌아온 혜택이 무엇인가?'라는 정치·경제적 손익계산서에 대한 불신이였다. 브렉시트 국면에서 런던에서는 재미있는 풍경이 펼쳐졌다. 국민투표를 앞두고 빨간색 대형 버스들이 시내 곳곳을 누비고 다녔는데, "떠나자(Vote Leave)!"라고 외치며 EU 탈퇴 캠페인을 벌이던 영국 보수당의 유세 차량이었다. 이 차량에는 다음과 같은 구호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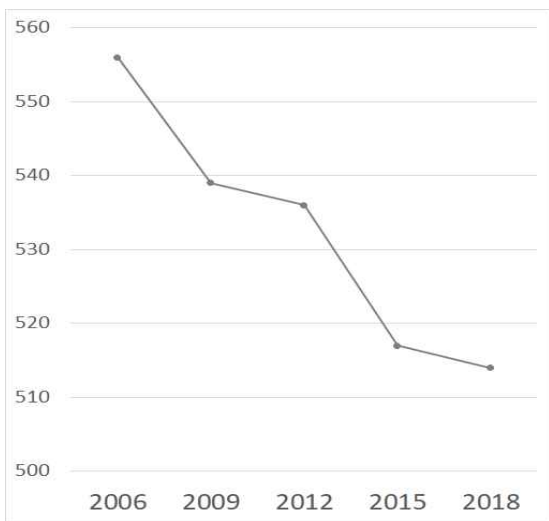


우리는 매주 3억 5천만 파운드를 유럽연합에 송금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돈을 국민 보건에 투자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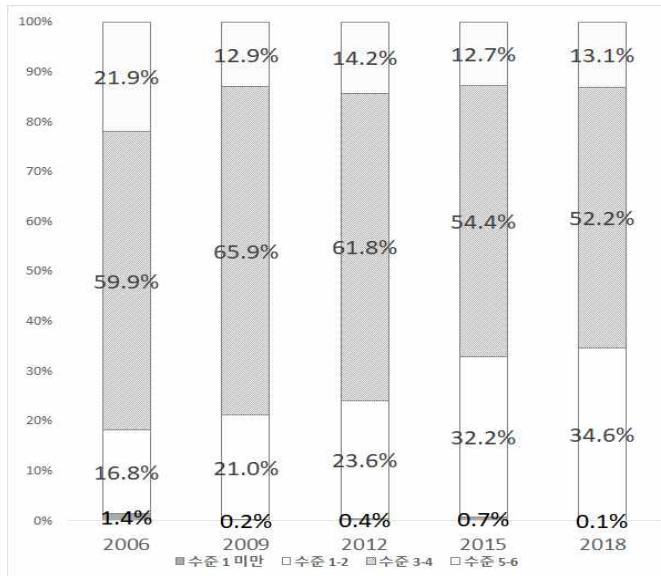
이 시기에 영국은 EU에 매주 3억 5천만 파운드를 회원국 비용으로 송금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그중 절반 정도를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돌려받고 있었다. 하지만 **빨간 버스의 구호**는 대중들을 현혹했다. 끝내 영국인들이 브렉시트를 결정하게 된 데에는 그들이 처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나, 전문가들은 당시에 만연하던 '허위 정보(disinformation)'가 국민투표의 결과에 미친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한다. 더욱이 허위 정보를 퍼뜨린 사람도 문제지만, 2016년 당시 다수의 영국인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눈에 보이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믿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

(다)

[국가 A]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성취도 추이(2006-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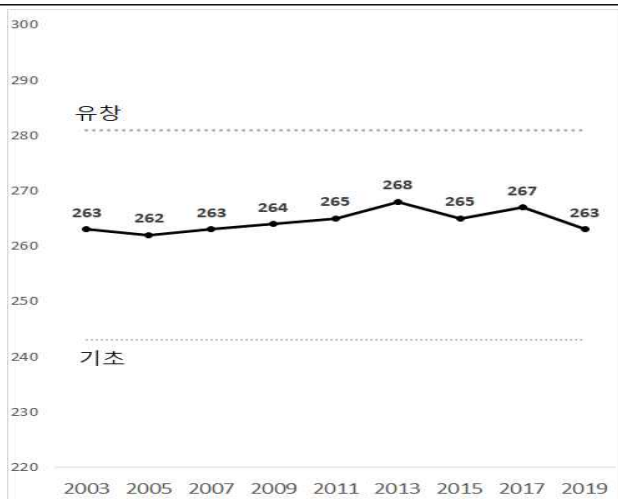
[그림 1] 전체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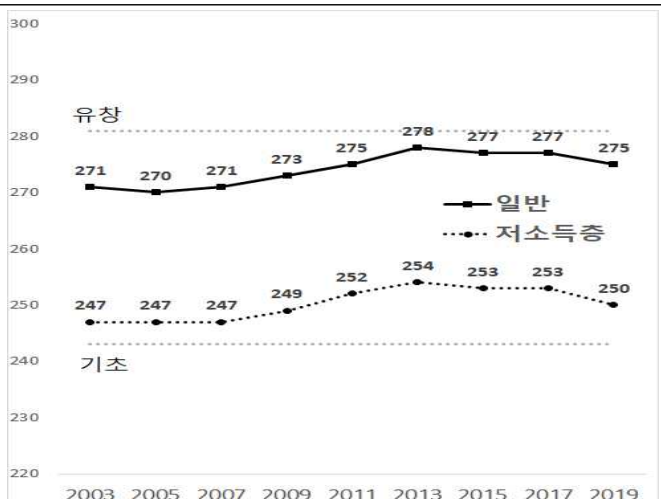
[그림 2] 성취 수준별 분포

*수준 5-6: 수준 3-4에 더하여 다양한 자료들의 가치를 종합적,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수준 3-4: 수준 1-2에 더하여 자료에 담긴 내용을 파악하고 심층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수준 1-2: 자료에 드러난 기본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
 *수준 1 미만: 자료를 읽지 못한다.

[국가 B]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읽기 성취도 추이(2003-2019년)



[그림 3] 전체 평균 점수



[그림 4] 일반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의 평균 점수

*유창: 다양한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고 심층적 의미를 분석 및 해석할 수 있다.
 *기초: 자료에 드러난 기본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